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9.(금) 20:00	배포 일시	2022. 12. 9.(금) 15:00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윤현철 (02-2100-2880)
<총괄>	글로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조형주 (02-2100-2886)

제8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12.9일 「제8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인도와의 우호를 증진하고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금융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I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22.12.9.(금)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제8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 제8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

- ▶ 주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 주최
- ▶ 일시/장소 : 2022.12.9.(금) 18:00~20:10 /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 ▶ 주요 참석자
 - (아세안·인도) 찰롱 보툼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 등 아세안 9개국 및 인도 대사
 - (한국)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진승호 금융협력대사, 은행장*(9명), 금융유관기관 기관장**(6명) 등

* 국민, 우리, 하나, 한국씨티, 수협, 카카오뱅크, 산업, 기업, 한국수출입

** 국제금융센터,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원

-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는 한국과 아세안·인도와의 금융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어온 정례 간담회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되었던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어온 금융권의 대표적 국제교류행사 중 하나입니다.

II 주요 논의내용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질서 속에서도 아세안·인도와 한국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

- 금융부문에서는 한국 금융회사들이 기간산업 지원을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경험이 있으며,
 - 아세안·인도의 모바일 인프라와 사용인구를 감안할 때, 한국 금융회사와 기업이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등에서도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 한국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아세안·인도 진출 및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참석한 대사들과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 금융당국도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아세안·인도 지역에 대한 은행권의 진출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 최근에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금융 기술 등을 바탕으로 현지 은행 및 기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상생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또한, 한국과 아세안·인도 간의 돈독한 신뢰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있어서도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이루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 금융산업이 빠르게 디지털화 되어 가는 가운데

- 한국의 강점인 핀테크, 금융 인프라 및 시스템을 통해 한국 금융회사가 동 지역의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대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RCEP¹⁾의 발효, IPEF²⁾ 및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³⁾의 출범 등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인도의 경제·금융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2.2.1. 발효)

2)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ia Pacific Economic Framework (22.5.23. 출범)

3) 한국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해 印尼 자카르타에 개설 ('22.4.13. 출범)

- 향후 동 간담회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금융산업 상호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윤현철	(02-2100-2880)
		담당자	사무관	조형주	(02-2100-2886)
<공동>	금융감독원 글로벌시장국	책임자	국 장	백규정	(02-3145-7890)
		담당자	팀 장	양지영	(02-3145-7901)
<공동>	은행연합회 지속가능경영부	책임자	부 장	정용실	(02-3705-5339)
		담당자	팀 장	김수연	(02-3705-5094)

참고1

국내 참석자 명단

	기관명	성명
1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2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3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
4	금융협력대사	진승호 대사
5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6	우리은행	이원덕 은행장
7	하나은행	박성호 은행장
8	기업은행	윤종원 은행장
9	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
10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
11	한국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
12	수협은행	강신숙 은행장
13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
14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15	금융연수원	서태종 원장
16	금융연구원	박종규 원장
17	신용정보원	신현준 원장
18	금융결제원	박종석 원장
19	국제금융센터	이용재 센터장

참고2**주한대사관 참석자 명단 (부임順)**

	주한 대사관	성 명	비 고
1	미얀마	Thant Sin	
2	싱가포르	Eric TEO Boon Hee	
3	브루나이	Pg Hjh NOORİYAH PLW Pg Hj Yussof	
4	베트남	Vu Tung NGUYEN	
5	필리핀	Maria Theresa B. DIZON-DE VEGA	
6	캄보디아	CHRING Botumrangsay	ACS 의장국
7	태국	Witchu VEJAJIVA	
8	인도네시아	Gandi Sulistiyanto SOEHERMAN	
9	인도	Amit Kumar	
10	말레이시아	Lim Juay Jin	